

경인년 한반도의 미래

장 달 중 / 서울대학교 교수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 같은 한반도 정세

기축년에서 경인년으로 해가 바뀌었다. 우리에게 경인년의 시작은 단순히 한해가 시작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역사적 시기의 일대 전환을 암시하는 징조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은 한일합방으로 나라를 잃은 경술국치 100주년인 동시에 해방 65주년, 6.25 전쟁 발발 60주년, 4.19 혁명 50주년, 그리고 6.15 공동선언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경인년의 시작은 망국에서 해방과 분단, 동족상잔의 치열한 전쟁, 그리고 후발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경을 극복하고 이제 통일과 “일류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전환의 시대를 준비할 각오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을 돌이켜 보면 한반도의 상황은 그림자의 환상을 쫓는 것과 같았다. 이 때문에 어느 외국 저널리스트의 표현대로 한반도 관찰(Korea-watching)은 결코 제대로 된 예측이 될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에 나오는 그림자 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모두 동굴의 벽에 비추어진 움직이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우리는 이 그림자의 움직임을 실제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북한의 핵실험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우리 모두는 동굴 속의 사람들이 동굴 밖의 세상을 보고 느낀 것과 같은 혼란과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몇 년간 한반도 상황은 동굴 속의 그림자와 같은 북한의 움직임 때문에 벼랑 끝 전술과 협상 그리고 벼랑 끝 전술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9.19 공동성명이나 2.13 합의 같이 돌파구를 마련하는 듯한 전술로 우리의 주의를 돌려 놓고는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살라미 전술에 의해 이를 무력화 시켜온 북한의 전술은 동굴 속의 그림자와 같았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전술의 악순환에 너무 지쳐있고, 아니 익숙해져 버려 어느 듯 북핵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심리적 무장 해제를 당하고 있는 느낌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합의나 협정이 자기 나라의 국익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을 때 이를 파기하는 것은 외교적 관례에 속한다. 하지만 준수할 의사도 없이 합의나 협정에 임하는 것은 배신행위에 다름없는 것이다. 그 동안 도발-협상-도발로 이어지는 북한의 행동 패턴을 보면 북한이 9.19 공동성명이나 2.13 합의를 할 때 과연 준수할 의사나 가지고 있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북한의 행위 때문에 지난 몇 년간의 한반도 관찰은 예측가능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결코 유쾌한 일이 될 수도 없었다.

대결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하지만 경인년의 시작과 더불어 이러한 한반도의 환경에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이 때문에 한반도 정세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게 되고 또 유쾌한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부풀어지고 있다. 우선 한반도 정세가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대결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금년에는 “핵무기 없는 세상(nuclear free world)”을 만들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북한 핵 제거를 위해 다각적인 형태로 한반도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결 국면으로 만 치달던 북핵문제가 지난 12월 8일부터 10일 사이의 스티븐 보스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으로 다시 대화의 테이블에 올려질 가능성이 높아

졌다. 오바마 정부 들어서 최초의 미북 공식양자대화이기도 했던 보스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으로 그 동안 해체위기까지 갔던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미북 양자 직접대화의 산물로 6자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비핵화에 대한 한미와 북한 간의 입장차이가 워낙 커서 조기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미북 정상 간에 친서가 교환되고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가 중요한 의제였다는 점을 감안 해보면 북핵문제를 둘러싼 대화국면이 전개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북미간의 적대관계청산을 들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실현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북미 간의 대화움직임은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전략적 유연성을 띠고 나타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하여 “올해에는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하고 “남과 북 사이에 상시적인 대화기구”를 마련할 것을 제의하고 나섰다. 그 동안 이명박 정부가 내세워 온 선 핵포기를 전제로 한 “비핵개방 3000”이나 “그랜드 바게인”도 북핵 문제가 북미 내지는 북중 관계의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우리가 배제될 지도 모르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유연한 변화를 보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타미플루 지원과 같은 인도적 대북지원이 보다 가시화되고 있으며, 남북 정상 회담의 가능성과 교류 협력의 확대가 이명박 정부 내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점도 남북 관계에 청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 북한의 대남 정책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작년에 보였던 원색적인 대남 비방을 삼가하고 6.15 공동선언에 기초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화폐개혁이 보여주고 있듯이 북한의 경제는 매우 어렵다. 신년 공동사설은 당 창건 65돌을 맞이하여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남한의 쌀 100만 톤과 비료 60만 톤의 대북 지원 중단에 따른 식량난과 금강산 관광 및 개성관광의 중단에 따른 외화 부족은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경제 문제와 권력승계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북한으로서는 미북 관계 개선으로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관계 개선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화 국면을 조성하

려 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의 변화도 대화 국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이른바 G-2시대를 연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차원에서 한층 협력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현대화를 위하여 북미 간의 직접대화를 통한 관계 정상화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식을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위상을 이용하여 더욱 강조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역할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경인년 한반도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G-2 국가로서의 중국의 부상은 공산주의적 명령경제를 배척하는 동시에 자유방임주의적 서구 경제도 배척하는 “제 3의 길”을 제시하며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여기에 일본 민주당 정권의 대등한 미일 관계 구축과 아시아 중시의 외교 정책도 지금까지 우리가 의존해 왔던 선 핵포기 후 대화라고 하는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수정 압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하토야마 신정부는 자민당 정부와 달리 대북정책에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토야마 수상은 “국교정상화 프로세스 중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제 3의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G-20 개최국인 동시에 의장국인 우리는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이러한 대화 국면을 주도하여 번영과 평화 그리고 통일의 초석을 놓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화 국면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들

경인년의 시작과 더불어 이러한 대화의 움직임을 살려내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지상과제이다. 우리 후세에게 보다 나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물려 줄 것인가 아니면 더욱 혼란스러운 한반도를 물려 줄 것인가는 G-20 의장국으로서의 한국이 당면한 기회요도전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 취해야 할 기본전략은 어떠해야 할

까. 당위론적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한반도에서 북한이 더 이상 위협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민족 이익의 관점에서 남북 관계의 공통 이익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건설적인 행위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안전을 담보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2년간 우리는 유엔결의 1874호의 제재 레짐에 따른 북한 고립화 정책을 택해 왔다. 하지만 1994년 핵위기 이후 북한의 행동패턴을 보면 이러한 제재에 의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명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반세기 기간 쿠바에 대해 고립정책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카스트로 쿠바의 건재함 뿐이었다. 실제로 군사적인 수단이 수반되지 않는 한 제재가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도전이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선택지가 없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분위기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일일 것이다. 물론 지금 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 일지 모른다. 그러나 제재를 통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으면서 “확고하고 인내심 있는(firm and patient)” 교섭을 통해 단계적 해결을 모색하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낼 수 있는 최선의 북핵 해결 방법임에 의문을 달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경인년 한반도의 미래는 바로 이러한 해결 방법을 어떻게 실천에 옮기느냐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6자 회담을 하루 빨리 프로세스에만 매달려 있게 할 것이 아니라 핵 폐기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6자 회담은 북한이 하자면 하고 북한이 불참하면 중단되는 패턴을 되풀이 해왔다. 이제 이러한 패턴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객관적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 상시 대화기구 뿐만 아니라 6자 회담 틀 속에서 한·미·북 3자 회담이나 한·미·중·북 4자 회담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바로 이것이 G-20 의장국 한국에게 주어진 경인년의 숙명적 과제가 아닐까. **統**